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녹) 연중 제 31일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뇨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율리아

(녹) 연중 제 31주일 (23. 11. 5.)

***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1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의 빛을 비추시어, 아무도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아버지의 자녀들인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 때문에 사람이 되신, 한 분뿐이신 스승의 제자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청합시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말라키 예언서 1,14ㄴ-2,2ㄴ.8-10):

14 정녕 나는 위대한 임금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민족들은 나의 이름을 경외한다.
2,1 자 이제, 사제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내리는 계명이다.
2 너희가 말을 듣지 않고, 명심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8 그러나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의 법으로 많은 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너희는 레위의 계약을 깨뜨렸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9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길을 지키지 않고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10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 아니시냐?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서로 배신하며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더럽히는가?

• 제2독서(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1서 2,7ㄴ-9.13):

형제 여러분, 7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온화하게 처신하였습니다.
8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자신까지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9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13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복음(마태복음 23,1-12):

1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3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 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4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5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인다.
6 잔칫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7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8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9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10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11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12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합당히 섬기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 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나이다. 제 눈은 높지도 않사옵니다. 감히 거창한 것을 따르지도, 분에 넘치는 것을 찾지도 않나이다.
○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다독이고 달랬나이다. 제 영혼은 마치 젖 뗀 아기, 어미 품에 안긴 아기 같사옵니다.
○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고 너희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 알렐루야.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이들을 보호하고 도우며, 세상 속에서 구원의 희망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평화를 바라면서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계를 굽어보시어, 이해관계와 이익을 좇아 다투기보다, 대화로 갈등을 풀며 평화로이 살아가게 하소서.

3. 사별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로하시어, 그들이 십자가 아래 성모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희망으로 고통을 이겨 내게 하소서.

4.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스승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모든 이가 겸손하고 서로 배려하며, 말을 앞세우기보다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참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천상의 성사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으니
저희에게 주님의 힘찬 능력을 드러내시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성가 ♪

입당 : 329(미사시작)
봉헌 : 332(봉헌)
성체 : 78(성체 앞에)
162(성체 성혈 그신비)
파견 : 233(주의 영원한 빛을)

공지 사항

♣ 모임/회의

- 청년구역 및 성서모임: 오늘 미사 후, 사제관
- 사목회의: 오늘 미사 후

♣ 봉사자

	오늘 주일(5일)	다음 주일(12일)
제1독서	류정연 릿다	정상현 안토니오
제2독서	박세아 루시아	우윤정 마리아
복사	박동현 요한보스코 이가은 마리아판체아	강윤이 스텔라 안태오 마태오
계단•화장실	류정연 릿다	정상현 안토니오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188.92 • 교무금 € 000.00

꽃이 별을 닮은 이유

꽃이 별을 닮은 이유는
밤마다 별을 보고
별을 꿈꾸기 때문이다

별을 보며
하늘 꽃밭을 꿈꾸고
별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오직 별만 사랑하기 때문이다

- 권효진의 시집《카덴자의 노래》에 실린
시 〈꽃이 별을 닮은 이유〉 전문 -